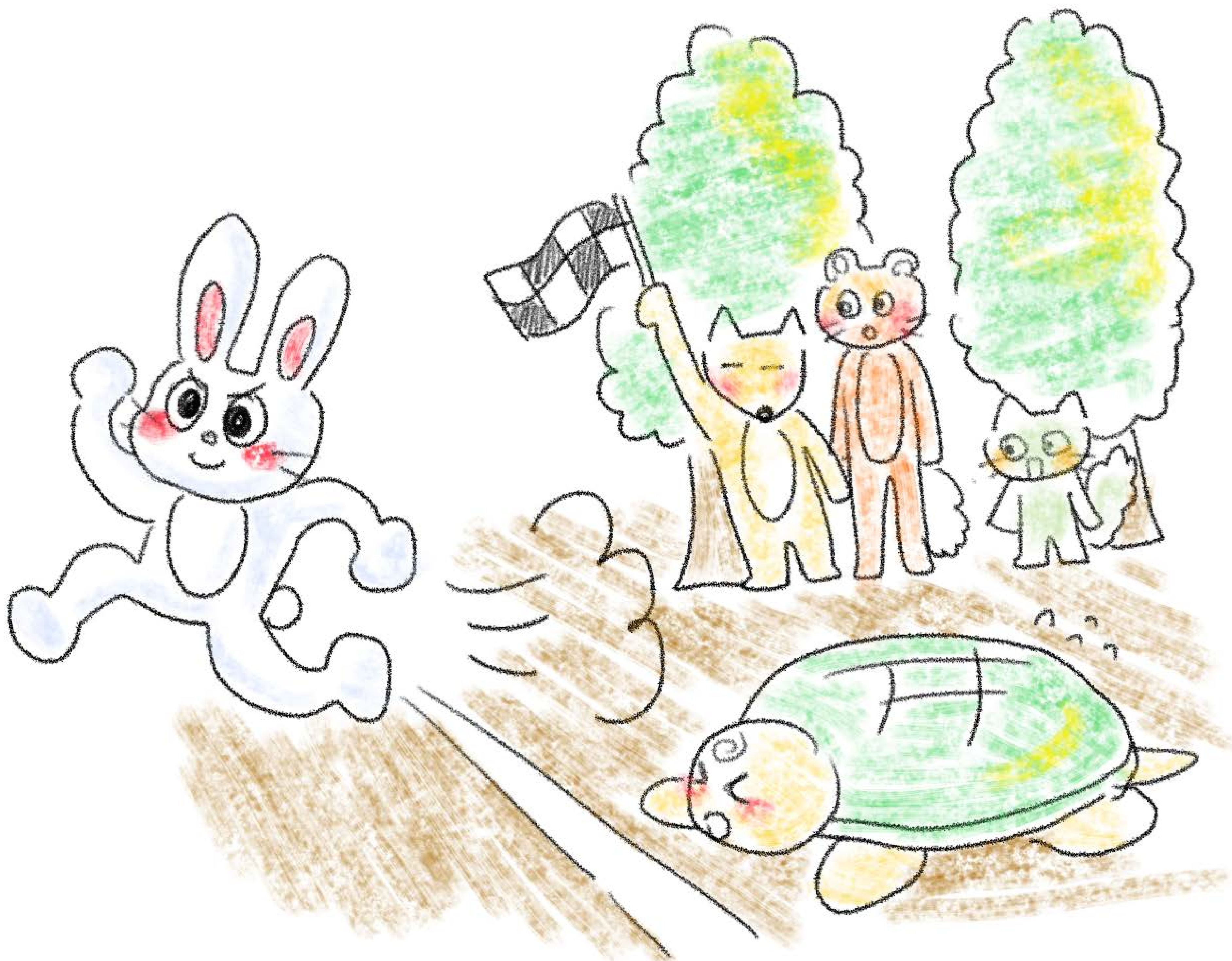




## 챕터2.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선에 나란히 섰을 때, 숲 속 친구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우 심판이 “준비, 출발!”을 외치자마자 토끼는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나갔고, 순식간에 거북이와의 거리를 크게 벌렸습니다.

“거북이, 나 따라오려면 한참 걸릴걸!” 토끼는 뒤를 돌아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한 걸음씩, 묵묵히 발을 떼며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토끼는 갑자기 길가에 놓인 커다란 나무뿌리를 보고 살짝 멈췄습니다. “이런 장애물쯤이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지!” 토끼는 거침없이 나무뿌리를 뛰어넘었지만, 작은 돌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이런, 조심할 걸!” 하고 투덜거렸지만, 가벼운 점프를 해 또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편 거북이가 천천히 나무뿌리를 돌아가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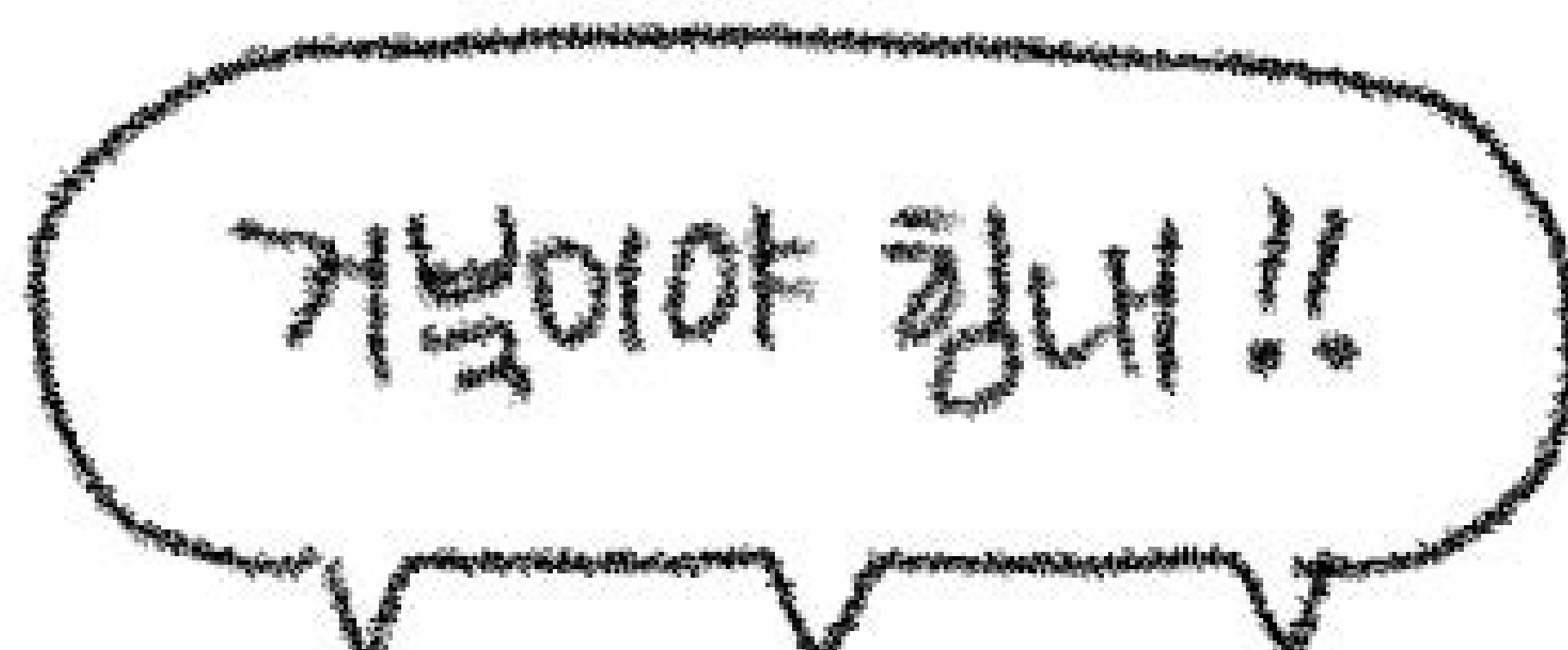
“이렇게 빨리 가면 지루하잖아!” 토끼는 한숨을 내쉬며 길가에 핀 들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잠시 멈춘 김에 토끼는 한 손으로 꽃잎을 따서 장난스럽게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경주는 즐겁지만, 가끔은 여유롭게 산책도 필요하지.”





반면, 거북이는 숨을 헐떡이며 토끼가 머물던 곳에 다가갔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지만, 묵묵히 목표만 바라보며 걷는 거북이를 보며 숲 속 친구들은 작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토끼는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뛰었지만, 이번엔 길을 가로막는 억센 덩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라? 이걸 좀 까다롭겠는데!” 토끼는 덩굴을 능숙하게 뛰어넘으려 했지만 발이 꼬여 한 바퀴 굴러버렸습니다.

“에휴, 괜찮아. 저 느린 거북이가 내 뒤에 있겠지 뭐!” 토끼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토끼가 지나간 덩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한 손으로 덩굴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통과했습니다. 거북이의 느린 속도는 장애물에 걸리지 않는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 발 한 발 결승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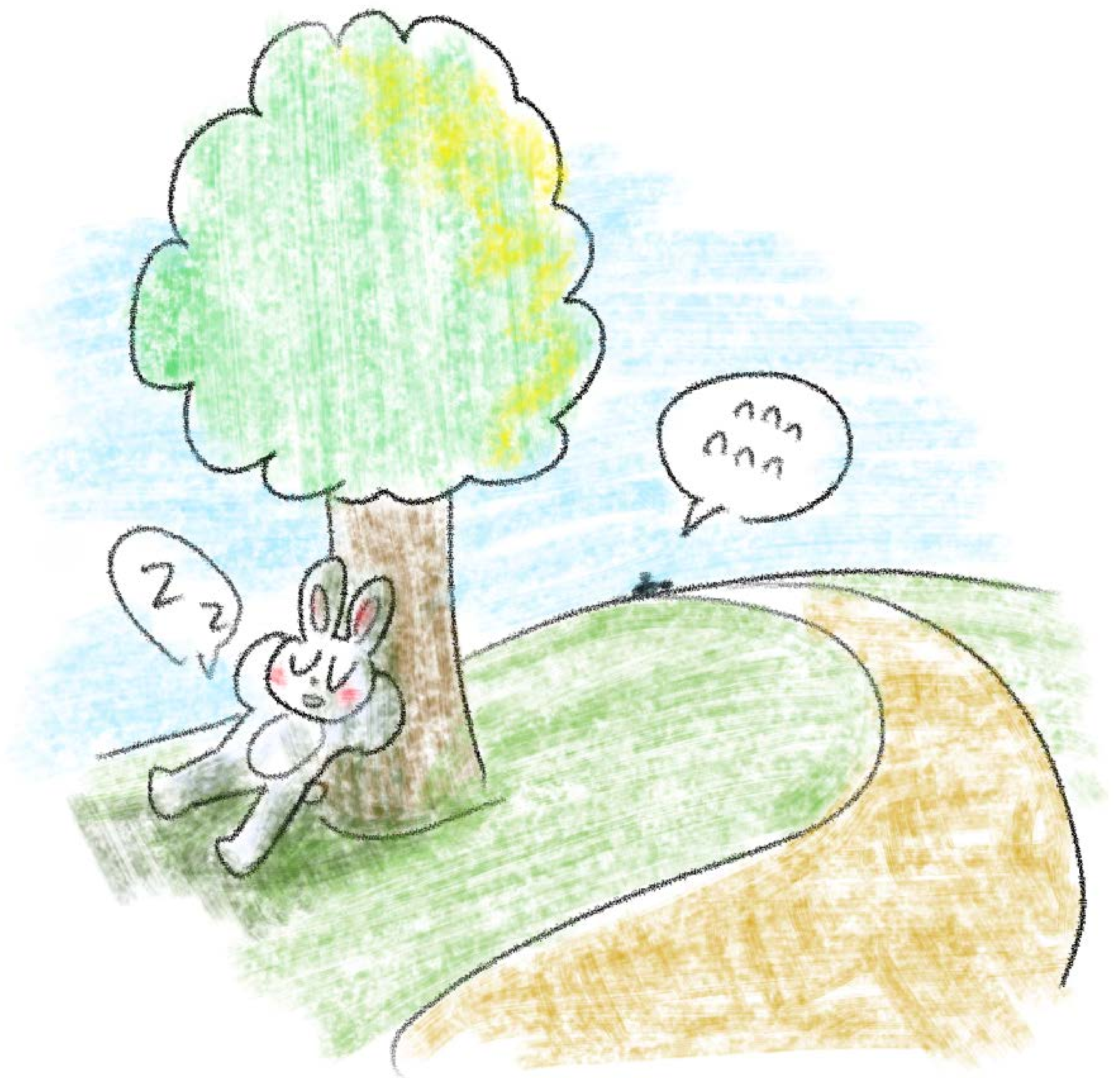


숲 속 친구들은 이 모습에 놀라워하며 거북이의 끈기를 응원했습니다. 거북이의 꾸준한 걸음걸이는 토끼의 지름길과는 다른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결승점이 멀지 않은 곳에서, 토끼는 뒤를 돌아보며 거북이가 한참 멀리 뒤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여유가 생긴 토끼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가서 잠시 낮잠을 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길 건 뻔하잖아!” 그는 눈을 감고, 달콤한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잠든 토끼를 지나쳤지만, 멈추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 속 친구들은 숨죽이며 이 뜻밖의 상황을 지켜보았고, 이제는 거북이가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